

漢詩를 통해 보는 조선시대 歲時風俗*

신 승 훈**

차 례

- | | |
|---------------------|--------------------|
| 1. 서론 | 2) 놀이문화로서의 세시풍속 |
| 2. 생활과 놀이의 문화, 세시풍속 | (1) 윷놀이(擲擲) |
| 1) 생활문화로서의 세시풍속 | (2) 연날리기(紙鳶) |
| (1) 설빔(歲粧) | (3) 널뛰기(超板/超板戯/跳板) |
| (2) 과하주(過夏酒) | 3. 결론 |
| (3) 유두(流頭) | |

국문초록

명절과 특별한 절기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생활문화와 놀이문화가 한데 어울려 나타난다. 생활문화와 놀이문화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한데 섞여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세시풍속이 많다는 점과 큰 명절, 즉 설날과 단오와 추석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문화학회 춘계 전국학술발표대회의 기획주제 발표논문으로 작성되었다. 발표와 토론을 거치며 지정토론자인 김승룡 교수의 지적과 조언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꼼꼼한 지적을 통해 논문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교수의 학문적 후의에 감사한다.

** 경성대학교 교수

시기적으로 歲時記가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이유는 세시풍속에 대한 관심이 조선후기에 가서야 지식인층에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화와 지식인의 변화된 의식의 모습을 歲時記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때문에 세시풍속이 漢詩化되어 전해지는 이유는 지식인들의 반성적 사고와 사회전반에서 일어난 기층 민중과 기층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목소리와 삶이 부각된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시풍속을 형성하고 향유하는 주체들은, 그들이 보고 들으며 자란 생활문화로서의 풍속을 자신들이 거를 수 없어서 재연한다. 이 세시풍속을 한시로 묘사하는 시인 또한 그들의 정성과 행위에 지식인으로서 동참하고 있다. 이는 기층문화의 강고한 생명력과 영향력에 그 동인이 있기 때문이다. 세시풍속 앞에서는 권력이나 신분, 체면은 아주 나약한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적잖은 한시에 세시풍속이 담겨 있고, 때로는 세시풍속만을 담은 연작시가 지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사실 문화란 켜켜이 쌓인 積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문화가 꼭 오늘날만의 문화는 아닌 것이다.

주제어 : 세시풍속, 기층문화, 歲時記, 생활문화, 놀이문화, 주체, 타자, 적층, 단면

1. 서론

“세시풍속(歲時風俗)이란 1년을 주기(週期)로 계절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생활행위를 말한다. 근래는 연중행사라는 말도 많이 쓰이지만, 옛날부터 세시(歲時), 세사(歲事), 월령(月令), 시령(時令) 등으로 불려서 특히 그 계절성이 강조되어왔다. 그래서 주요한 세시풍속의 날자

들은 이른바 명절로 형성이 되어 개인 생활이나 국민 생활에 주기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¹⁾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세시풍속은 세계의 어디서나 고금의 어느 때나 있었다.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조선시대도 그래서 예외는 아니다.

세시풍속은 보편적으로 그 주체²⁾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기후 그리고 풍토에 맞게 형성되고 변천하여왔다. 이는 범박하게 자연적 요인이라 요약할 수 있다. 또 세시풍속은 그 주체가 생업으로 삼는 주된 산업에 기대어 형성되고 변화되어왔다. 우리에게는 주로 그것이 농경이었기에 농경 문화적 요인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세시풍속은 그 주체가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사상과 종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계승되어왔다. 이를 범박하게 종교적 요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³⁾ 이러한 요인들은 세시풍속의 성격과 내용으로부터 그 구현양상에까지 전 방위적으로 작동된다. 아울러 이 요인들은 어느 한 요인만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세시풍속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세시풍속도 상기한 요인에 고스란히 지배받으며 계승되었다. 사실, 조선시대에 처음 형성된 세시풍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성리학의 영향으로 처음 발생한 세시풍속이 있다면, 그리고 조선 건국 이후에 발생한 세시풍속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시대에 처음 생긴 세시풍속이라 하겠으나, 그런 것은 과묵한 탓인지 알지 못하겠다. 게다가 대개의 세시풍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한 추적이 어렵다. 대체로 추정할 수 있는 연대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⁴⁾ 그렇다면 세시풍속은 특정할 수 있는 시기나 결정적 계기에

1)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장주근저작집IV-세시풍속편』,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민속원, 2013, 23쪽.

2) 세시풍속을 만들고 향유하는 주체를 말한다. 민족이나 국민, 또는 백성 등의 용어가 지닌 포괄성보다는 세시풍속을 만들어 향유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장주근, 위의 책, 25-31쪽 참고.

4) 세시풍속이 형성되고 변화하며 계승되는 양상을 거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닌 기층의 저변에 흐르는 문화가 의식화된 절차를 형성하거나 행위의 규범이 되거나 생활에 변화를 주는 기층문화⁵⁾인 것이다.

기층문화인 세시풍속을 漢詩로 기록한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은 과연 세시풍속을 어떤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을까? 한시로 기록했기 때문에 지식인이자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의 의식과 시각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더불어 세시풍속을 담은 한시의 창작 주체인 사대부는 어떤 모습으로 세시풍속과 함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세시풍속의 주체인 기층의 민중과 기록의 주체인 사대부가 동질화되고 있는지, 객관적 위치에서 관찰자와 기록자로서 남아있는지를 보고자함이다.⁶⁾

이상의 논점을 밝히고자, 본고에서는 우선 대표적인 세시풍속을 몇 가지 추출하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한시를 살핍으로써 조선시대의 기층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현대에 계승된 세시풍속의 전변과정 중 前史의 한 단계와 과정을 짚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세시풍속을 담은 한시에 주목하여 이러한 논점을 추구하는 의도는 에두아르트 호스가 말한, “풍속의 역사를 서술할 경우 가장 큰 목표는 바로 과거의 재구성, 즉 각

학문적으로 유용한 논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시풍속의 系譜學이라야 가능한 논의이다. 따라서 집필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본고에서는 세시풍속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조선시대의 단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 5) 기층문화는 일반적으로 피지배계층의 민중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시대를 놓고 볼 때, 기층문화가 반드시 민중의 문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상층부의 지배계층으로부터 최하층까지 세시풍속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조선후기의 사회 상황, 즉 신분의 동요나 지배계층의 배타적 공고화 등을 고려하면 민중의 문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기층문화는 모든 계층에 두루 영향을 주는 ‘기저로서의 문화’를 의미한다.
- 6) 동일화 내지 동질화가 포착된다면, 고전적으로는 ‘與民同樂’의 실천이라 하겠고, 현대적으로는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사대부의 모습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관찰자와 기록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면, 고전적으로는 ‘觀風察俗’의 역할에 충실한 지도자로 자임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볼 것이며, 현대적으로 ‘관망하는 타자’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특징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모아서 하나의 골격을 만듬으로써 과거의 현실을 원래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거가 독자의 눈에 부조(浮彫)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면 이 목표는 훌륭히 달성된 것이다.”⁷⁾는 언급에 많이 기대어 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를 비롯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온전한 ‘과거의 재구성’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 단면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에 만족하고자 한다. 단면이 적층의 구조를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구성의 요소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기에 의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생활과 놀이의 문화, 세시풍속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매우 다양하다. 그 모두를 枚舉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고, 그 모든 세시풍속이 모두 한시에 담겨 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모두 거론함은 지양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歲時記에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세시풍속 가운데 지금도 그 흔적을 알 수 있거나, 再演되고 있는 것을 다르게 말해 보편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전하는 歲時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기록물은 정조대(1777~1800)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柳得恭의 『京都雜誌』와 순조 19년인 1817년에 간행된 金邁淳의 『洌陽歲時記』와 헌종 19년인 1849년에 간행된 洪錫謨의 『東國歲時記』가 있다. 『東國歲時記』는 전국 규모의 세시풍속을 담고 있어서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다만

7) 에두아르트 폭스, 이기웅 박종만 옮김, 『풍속의 역사I-풍속과 사회』, 까치, 1988, 5쪽. 이 문장을 인용한 이유는 폭스가 성의 변천사에 주목했던 그 전체적 의도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의 모습을 부조처럼 복원해보려는 목표를 가졌던 것에 대한 공감과 동의 때문이다. 이 짧은 논문에서 변화의 과정까지 추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 내용이 산문으로 서술된 것이라 본고에서는 참고만 한다. 대신 洪錫謨가 남긴 「都下歲時記俗詩」는 전편이 한시로 이루어진 것이라 자료로 삼는다. 『경도잡지』와 『열양세시기』는 주로 서울지역의 풍속을 다룬 것이라 한정적이긴 하지만, 역시 참고가 된다.

상기한 세 자료는 모두 조선후기에 집중된 것이라. 조선시대 전체를 포괄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렇게 집중된 이유는 세시풍속에 대한 관심이 조선후기에 가서야 지식인층에까지 확산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화와 지식인의 변화된 의식의 한 모습을 歲時記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세시풍속이 漢詩化되어 전해지는 이유는 지식인들의 반성적 사고와 사회전반에서 일어난 기층 민중과 기층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목소리와 삶이 부각된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⁸⁾

세시풍속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분류해보면 생활 문화로서의 세시풍속이 있고, 놀이문화로서의 세시풍속이 있다.⁹⁾ 생활 문화로서의 세시풍속이란 1월에 행해지는 것으로는 ‘설빔(歲粧)’, ‘차례(茶禮)’, ‘세배(歲拜)’, ‘덕담(德談)’, ‘문안비(問安婢)’, ‘세화(歲畵)’, ‘소발(燒髮)’, ‘벚가릿대(禾竿)’, ‘부럼(嚼癩)’, ‘엇치기(齒較)’, ‘귀밝이술(耳明酒)’, ‘나무시집보내기(嫁樹)’, ‘오곡밥(五穀飯)’, ‘약밥(藥食)’, ‘안택(安宅)’, 등이 있다. 2월에 행해지는 것으로는 ‘중화절(中和節)’, ‘머슴날’, ‘콩북기’, ‘영등굿’, ‘좁생이 점’, ‘춘계석전(春季釋奠)’ 등이 있다. 3월에 행해지는 것으로는 ‘화전(花煎)’, ‘화면(花麵)’, ‘수면(水麵)’, ‘과하주(過夏酒)’, ‘뽕장떡(餛飩餅)’, ‘환병(環餅)’, ‘마제병(馬蹄餅)’, ‘한식(寒食)’ 등이 있다. 4월에는 ‘증

8) 반성적 사고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양란의 상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지식인층의 다양한 시도를 두고 한 말이다. 때로는 자기반성적인 성찰이 저술로 만들어졌고, 때로는 새로운 각성이 있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유성룡의 『懲愆錄』이고, 후자의 사례는 조선후기 實學을 들 수 있겠다.

9) 이 구분은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많은 세시풍속이 크게 음식, 주거, 활동 등의 생활문화와 유희, 연마 등의 내용임에 착안하였다.

편', '어채(魚菜)', '고기만두', '미나리강회' 등이 있다. 5월에는 '단오굿', '창포탕(菖蒲湯)', '창포비녀', '쑥떡(艾餅)', '익모초(益母草) 말리기', '단오 부채(端午扇)', '단오부적(端午符籙)' 등이 있다. 6월에는 '계음(禊飲)/유두연(流頭宴)', '천신(薦新)', '보신탕(狗醬)', '삼계탕(蔘鷄湯)', '농신제(農神祭)' 등이 있다. 7월에는 '책 말리기(曬書)', '옷 말리기(曝衣)', '칠석맞이', '호미씻기(洗鋤宴)', '우란분회(盂蘭盆會)' 등이 있다. 8월에는 '햐쌀밥(新稻飯)', '신도주(新稻酒)', '송편 빚기', '근친(覲親)', '추계석전(秋季釋奠)' 등이 있다. 9월에는 '햐쌀떡 빚기', '국화주(菊花酒) 담기' 등이 있다. 10월에는 '고사 지내기', '조상단지 모시기', '시제(時祭) 지내기', '난로회(煖爐會)', '연포탕(軟泡湯)', '밀단고 빚기', '김장' 등이 있다. 11월에는 '동지 팔죽', '달력 올리기', '냉면 먹기', '새끼 꼬기' 등이 있다. 12월에는 '납향(臘享)', '대청소', '묵은 세배', '연말 선물(歲饋)', '나희(儺戲)' 등이 있다.

놀이문화로서의 세시풍속으로는 1월에 행하는 '널뛰기(超板戲/超板/跳板)', '웃놀이(擲四)', '연날리기(紙鳶)', '승경도놀이(陞卿圖/陞政圖/從卿圖/從政圖)', '다리밟기(踏橋)', '지신밟기(埋鬼/乞粒)', '쥐불놀이(鼠火)', '석전(石戰)' 등이 있다. 2월에 행해지는 것으로는 '노래기 부적(符籙)', '개구리알 먹기' 등이 있다. 3월에 행하는 '화류놀이(花柳)', '활쏘기', '풀각시', '풀놀이' 등이 있다. 4월에는 '관등놀이(觀燈)', '봉선화 물들이기' 등이 있다. 5월에는 '씨름(角觝)', '그네(鞦韆)' 등이 있다. 6월에는 '탁죽놀이(濯足)', '천렵(川獵)' 등이 있다. 7월에는 '백중놀이/두레삼'이 있다. 8월에는 '소먹이놀이', '줄다리기', '사자놀이', '강강술래', '소싸움(鬪牛)', '닭싸움(鬪鷄)' 등이 있다. 9월에는 '단풍놀이'가 있다. 10월에는 '대감놀이'가 있다. 11월에는 '팔죽 먹고 나뭇짐 지기'가 있다. 12월에는 '참새 잡이', '폭죽놀이', '수세(守歲)' 등이 있다.

명절과 특별한 절기에 행해지는 이 세시풍속은 사실 생활문화와 놀이문화가 한데 어울려 나타난다. 생활문화와 놀이문화가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한데 섞여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세시풍속이 많다는 점과 큰 명절, 즉 설날과 단오와 추석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제 조선시대 한시에 나타나는 세시풍속을 생활문화와 놀이문화로 나누어 각각 세 가지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말은 형태가 다소 다르겠지만 현대에도 재연되고 있는가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세시풍속인가, 시연된 범위가 전국적인가를 두고 가장 넓게 시연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세시풍속을 두고 한 말이다.

1) 생활문화로서의 세시풍속

(1) 설빔(歲粧)

첫째로 볼 세시풍속은 설빔(歲粧)이다. 원래는 ‘설비움’이었는데 그 준말이 ‘설빔’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집의 형편껏 옷을 해서 입고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세배도 다니고 바깥나들이를 했다고 한다.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설빔’의 풍속이 행해지고 있어 그 자취는 볼 수 있다.

다음은 洪錫謨의 「都下歲時記俗詩」¹⁰⁾ 가운데 ‘설빔’을 읊은 것이다.

童男兒女少年人
燦燦新衣與歲新
打扮靚粧光動路
條風初拂滿城春

사내아이 계집아이 젊은이들이
반짝이는 새 옷과 새 물건 들었네.
얌전히 단장하여 길에 빛이 나니
한 줄 바람이 일자 온 성안이 봄이로다.

10) 洪錫謨 編著, 秦京煥 譯註, 『서울·세시·한시-都下歲時記俗詩』, 보고사, 2003, 37쪽. 이하 「도하세시기속시」의 원문은 이 책의 것을 준용한다. 아울러 번역은 이 책의 것을 참고하여 필자가 수정하여 가필했음을 밝혀둔다.

조선시대에는 큰 전란이 있거나 크게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지만 않았다면, 남녀노소가 자신의 집안형편에 따라 새 옷을 지어 입거나, 깨끗이 수선한 설빔을 입었다. 지금도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개가 설빔과 추석빔으로 세시풍속을 계승하고 있는 흔적이라 하겠다. 설빔은 묵은 것을 다 떨치고 새 것으로 바꾸고 가는 것을 풍속으로 나타낸 것이다.

홍석모는 주로 아이들과 젊은이의 차림새를 말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설빔을 ‘燦燦’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여쁘게 차려입은 아이들과 젊은이의 모습을 포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필 아이와 젊은이를 말한 것은 새로운 기운으로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표현과 함께 한 해의 시작을 생기 있고 역동적인 느낌을 담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겨진다. 정작 본인은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담담하게 설빔을 입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즉 관망하는 타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위의 시와는 다르게 ‘설빔’이 기억의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한시도 있다. 申光漢의 「除夕雜詠」의 하나인 「憶長女」¹¹⁾가 그렇다.

一嫁三年隔李妻	한번 시집가 3년을 이씨의 아내로 떨어져 있더니
書來每道憶爺啼	늘 편지가 올 때면 아버지 보고파 운다고 말하네.
胭脂雪粉應傳去	연지와 설분은 응당 전해졌을 터이니
新歲粧今趁曉鷄	설날이라 설빔입고 새벽닭 소리에 따라 나서겠지.

신광한에게 ‘설빔’은 시집간 장녀를 떠올리는 장치이다. 신광한의 장녀는 이씨에게 시집을 갔고, 3년을 친정으로 觀親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

11) 申光漢, 「除夕雜詠-憶長女」, 『石北集』 권6, 『한국문집총간』 제231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317쪽.

런데 이번 설에는 아버지가 보낸 선물인 연지와 설분을 받았으니, 곱게 차려입고 찾아오겠거니 바라는 마음을 이 시는 담고 있다. 補足이지만, 통상 시집간 딸이 3년이 지나면 覲親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듯하다.

‘설빔’은 身分의 高下나 年齡의 多少를 초월하여 특정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다. 나아가 이 시의 경우에는 세시풍속이 조선시대 사람의 문화와 문학에 깊이 각인된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 아울러 신광한은 설빔을 입은 딸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시에 담음으로써 자신도 이 풍속의 한 주체로서 묘사하고 있다. 즉 남의 일을 말하듯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음으로써 시 속의 또 하나의 주체로 어른거리고 있다.

(2) 과하주(過夏酒)

여름의 더위를 잘 나기위해 마신다는 술이다. 집에서 담기도 하고 술집에서 팔기도 하는 이 술을 마셔야 그해 더위를 잘 넘긴다고 3월이면 성행했던 술이다. 徐有渠(1764~1845)가 편찬한 『山林經濟』의 술 빚기 항목에는 魚叔權이 편찬한 『攷事撮要』의 내용을 인용하여 과하주를 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과하주(過夏酒)는, 매 씻은 찹쌀 1말을 물에 담가 둔다. 곱게 간 누룩 5홉을 명주 부대에 담아, 끓여 식힌 뒤 물 반병에 담가 둔다. 이튿날 깨끗한 물 8-9홉을 팔팔 끓여 식힌 뒤 골고루 찹쌀에 뿌리고 폭 찌서 누룩 담근 반 병 물과 섞어 누룩가루는 쓰지 않는다. 항아리에 넣고, 주둥이를 봉하여 사흘 만에 열어 노그라지게 익었는지를 보아, 노주(露酒)를 붓는다. 만약 달게 빚고 싶으면 9복자[鑄子]만 붓고, 맛이 쿡 쓰게 하려면 두어 복자 더 붓고, 달게 하려면 양을 줄이면 된다. 노주를 부은 지 7 일째가 되면 술통에 뜰 수 있다.¹²⁾

12) 徐有渠, 『山林經濟』 권2, 「釀酒」, 한국고전번역원DB 인용.

과하주는 누룩가루를 쓰지 않고 담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달콤하면 서도 뒷맛이 깔끔하다. 거나하게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음료처럼 목을 축 이는 정도로 그치는 술이라는데, 예나지금이나 술꾼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담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된 술이니 당시에 얼마나 성행했 는지 잘 알 수 있다.

이 과하주를 申濡(1610~1665)¹³⁾는 본편보다 더 긴 제목과 序를 달아 읊었다. 그 제목은 「家人舊釀過夏酒, 今年選用新方 味絶佳 酷似日本之鎌 刈縣忍冬酒 吟成一絶」¹⁴⁾이다. 풀이하자면 “집사람이 예전부터 과하주를 담아왔는데, 금년에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여 담았다. 맛이 아주 좋아 서 일본 鎌刈縣 인동주와 매우 흡사하다. 읊조리다가 절구 한 수를 이루 었다.”이다. 일본의 겐예현 인동주는 막부에 공물로 바치던 장수주로 유명하기에, 새로 담았다는 과하주의 맛이 아주 좋았던 듯하다. 그래서인

13) 申濡는 “1630년(인조 8) 진사가 되고, 1636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지평(司憲府持平)·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642년에 이조좌랑이 되고, 이듬해 통신사(通信使)의 종사관 으로 일본에 다녀왔다”고 한다. 통신사 일행은 “창경궁에서 국왕에게 사폐(辭 陞)한 후 죽산 - 충주 - 문경 - 안동 - 의성 - 영천 - 경주를 거쳐 동래부에 도 착한다. 이어 기선(騎船) 3척과 복선(卜船) 3척 등 6척으로 구성된 통신사행의 선단은 부산포에서 출발하여 쓰시마(對馬島) - 잇키노시마(壹岐島) - 아이노시 자(藍島) - 아카마가세키(赤間關)를 거쳐 세토내해(瀬戶内海)의 가마카리(鎌刈) - 토모노우라(鞆浦) - 우시마도(牛窓) - 무로즈(室津) - 효고(兵庫) - 오사카(大 阪)에 닿은 후 요도가와(淀川)를 거쳐 교토(京都)에 도착한다. 이후로는 육로로 가는데, 히코네(彦根) - 나고야(名古屋) - 오카자키(岡崎) - 하마마츠(浜松) - 슌푸(駿府) - 하코네(箱根) - 시나가와(品川)를 거쳐 도쿠가와막부의 소재지였 던 에도(江戸)에 도착한다.”고 하니, 신유는 가마카리에서 술을 마셨을 듯하다. 특히 인동주는 막부에 공물로 바쳐지는 술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랑했던 장수주라고 한다. 인동초를 물에 끓여 우리고, 쌀로 떡을 지은 뒤(누룩), 술을 만 들지요. 따라서 이 詩와 序는 누룩을 쓰는 인동주와 누룩을 쓰지 않은 과하주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김승룡 교수의 토론문 중에 사실관계에 관한 부 분을 전재한 것임을 밝힌다.

14) 申濡, 「家人舊釀過夏酒, 今年選用新方 味絶佳 酷似日本之鎌刈縣忍冬酒 吟成一絶」, 『竹堂集』 권7, 『한국문집총간』속 제3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7, 467쪽.

지 신유는 序까지 달았다. “사람들은 인동전수에 쌀을 섞어 술을 만드는데 맛이 달고 시원하며 아울러 기운을 발산시키는 공도 있다.”¹⁵⁾고 하였다. 도수는 그리 높지 않으나 취기가 빨리 오르는 술이었던 듯하다. 인동전수는 忍冬草를 넣어 우린 물이고, 거기에 쌀을 섞어서 담은 막걸리를 忍冬酒라 한다.

이제 본편의 시를 본다.

家人釀得新方法	집사람이 새 방법으로 술을 빚었는데
甕裏澄清不用槽	항아리 속 맑고 깨끗하니 酒槽를 쓰지 않았네.
却道松京過夏酒	그저 송도의 과하주라 말하지만
絶勝鎌刈忍冬醪	일본 겐예현 인동주보다 낫겠다.

술을 빚어 마시는 문화야 예나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고, 재료와 방법이 다를 뿐 서양이나 동양이 다를 것도 없다. 특이한 것은 일본 술맛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신유는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그 여정에 겐예현이 있었기에 그 고장의 술을 맛보았던 것이 분명하다. 당시에 일본 술도 소개가 되었을 정도의 문물교류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酒槽는 酒榨(주자)라고도 하는데, 누룩을 눌러 술을 내리는 도구이다. 주조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누룩을 쓰지 않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앞에서 『산림경제』의 언급과 통하는 것이다. 시에서 시인은 소비자이며 주체이다. 가장 능동적이라 하겠다.

여하튼 이 시는 집에서 술을 빚어 그것으로 음료로 삼으면서 여름을 잘 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시절마다 그때그때에 맞는 술을 빚고 담아서 마시던 풍속이 이 시에 잘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계절마다 나는 과일로 술을 담고, 약초나 인삼 등으로 술을 담는 집이 많다. 조선 시대에는 끼니로 먹기에도 귀한 쌀을 술을 담는데 썼다는 까닭으로 禁酒令이라는 법령이 공포되고 엄금하는 때도 있었지만, 신분의 고하를 막

15) 위의 책, 같은 쪽. “人以忍冬煎水, 和米作酒, 味極甘冽, 兼有發散之功.”

론하고 술을 빚어 먹는 풍습은 아무리 엄한 법령 하에서 있었고, 매우 흉년이 들어 먹을거리조차 없는 때만 제외하면, 백성들도 쌀로 술을 담았다. 관의 엄한 눈초리는 祭酒를 장만한다는 핑계로 벗어나기도 했다. 여하튼 이러한 생활문화의 풍속을 보여주는 이 시를 통해, 과하주를 담아먹는 세시풍속이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거나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유구한 이력을 지니며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문화는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기에 생활문화로서의 풍속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면일 것이다. 사실 문화란 켜켜이 쌓인 積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문화가 꼭 오늘날의 문화는 아닌 것이다.

(3) 유두(流頭)

조선전기의 문인 成俔은 『慵齋叢話』에서 유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6월 15일은 유두(流頭) 날인데 옛날 고려의 환관(宦官)들이 동천(東川)에서 더위를 피하여 머리를 풀고는 물에 뒹다가 잠겼다가 하면서 술을 마셨음으로 유두라 하였다. 세속에서는 이로 인하여 이날을 명절로 삼고 수단병(水團餅)을 만들어 먹었으니, 대개 회화나무 잎 가루를 냉수에 일어 먹던 유숙인 것이다.¹⁶⁾

流頭日에 머리감는 풍속을 설명해주는 글이라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 시대에는 주로 이날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던 듯하다.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기에 ‘流頭’라는 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홍석모의 『東國歲時記』에는 다음처럼 유두를 설명하고 있다.

15일을 우리나라 풍속에 유두일이라 한다. 『김극기집金克己集』(고려 명종대 학자의 문집)에 ‘경주 풍속에 6월 보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버린다. 그리고 액막이로 모여서 술을 마

16) 成俔, 『慵齋叢話』 권2, 한국고전번역원 DB.

시는 계음禊飮을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고 했다. 조선의 풍속도 신라 이래의 옛 풍속으로 말미암아 유두를 속절俗節로 삼게 되었다. 경주, 상주 등에 아직 이런 풍속이 남아 있다.¹⁷⁾

앞서 보았던 성현이 남긴 「流頭日食水團餅」¹⁸⁾은 유두날의 음식과 풍속을 잘 담고 있다.

被髮東川事已悠	동천에 머리 감던 일은 이미 아득해졌지만
年年佳節是流頭	해마다 아름다운 명절 이게 바로 유두일세.
紛紛白雪初飛杵	눈발 같은 가루가 처음 절굿공이에 날더니
磊磊銀丸忽滿甌	동실동실 흰 구슬이 문득 사발에 가득하네.
槐葉冷淘何足比	괴엽냉도 ¹⁹⁾ 를 어찌 이에 비할 수 있으랴
胡麻香餌未爲優	참깨 바른 경단도 이보다 우월치는 못하리라.
君王深殿迎涼晚	군왕의 깊은 궁전의 서늘함 맞는 저녁에
亦有仙廚此味不	대궐의 주방에도 이런 맛이 과연 있는지.

‘水團’이란 멥쌀가루를 찌서 구슬같이 잘게 썬 것을 꿀물에 넣고 얼음에 채워서 먹는 떡이다. 이 떡이 얼마나 맛있기에 성현은 두보가 칭송했던 ‘괴엽냉도’보다고 낫고, 대궐의 주방에도 이런 음식은 없을 것이라 너스레를 떨었다. 특별한 날에 먹는 특정한 음식을 ‘節食’이라 한다. ‘절식’은 음식으로서 생활문화의 하나이다. 그날에 그 음식이 없으면 그날의 의미가 퇴색하는 그런 음식인 것이다.

시인은 매우 적극적인 풍속문화의 향유자이다. 수단을 먹으며 그 맛과 느낌을 유려한 문학적 재능으로 형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시풍속에

17) 장주근, 앞의 책, 303쪽, 번역부분 인용.

18) 成俔, 『虛白堂詩集』권8, 한국고전번역원 DB.

19) ‘槐葉冷淘’는 해나무 잎의 즙을 밀가루에 섞어서 만든 일종의 냉면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괴엽냉도」 시에 “푸르디푸른 높다란 해나무 잎을, 따서 주방에 가져다주고, 밀가루를 시장에서 사다 섞으니, 즙과 찌끼가 완전히 함께하누나. [青青高槐葉 采掇付中廚 新麪來近市 汁滓宛相俱]”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9』-한국고전번역원 DB.

관한 관심이 기록물로 본격화되어 집중적으로 양산되는 것은 조선후기가 맞지만, 그 관심과 향유의 명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조선전기에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성현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런 세시풍속을 기록한 『용재총화』를 남기고 있다. 『용재총화』가 세시풍속을 다룬 專著는 아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에는 이런 종류의 세시풍속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세시풍속의 기록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시풍속을 담은 한시도 조선시대 전 시기에 두루 걸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마지막 시인이라 할 黃玹(1855~1910)이 남긴 「祭農神辭」²⁰⁾는 농민들이 행하던 유두일의 풍속을 담고 있는 것이라 특기할 만하다.

6월 15일을 유두절(流頭節)이라 칭한 것은 신라 시대 옛 풍속이다. 이른 아침에 농부들이 농신(農神)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기도 없고 무릎 꿇고 절하는 절차도 없이 다만 술과 떡을 발머리에 차려 놓을 뿐이니, 비루하다. 농부들을 위하여 농신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글을 지어서 그 일을 반대로 서술하는 바이다. 글은 다음과 같다.

望之油油兮野無垠	바라보니 곡식 무성하여라 들은 끝이 없는데
冥霰霖兮風晏溫	가랑비 자욱이 내리고 바람세도 온화하구나.
俗坯璞兮無瓊筭	풍속이 질박하여 아직 경전이 없거니
不必諏吉兮今日良辰	굳이 좋은 날 물을 것 없이 오늘이 좋은 날 일세.
臨流沐頭兮吉祥來	동류수에 머리 감으면 길상이 내려 온다지
攬半月兮千春	신라의 옛 풍속을 끌어온 지 천 년이로다.
黃冠僇兮禾沒腰	황관 쓰고 춤을 추니 벼 이삭에 허리가 묻혀라
云誰之賜兮匪直芟耘	이게 누가 주신 건가 베고 깎맨 때문만이 아
	닐세.
昭神貺兮莫余弛	신명이 내려 주시니 내 마음 해이함 없이
媵余服兮肅將事	내 고운 옷 입고 엄숙하게 제사를 지내도다.

20) 黃玹, 「祭農神辭」, 『梅泉集』 권1, 한국고전번역원 DB.

清溪白洗兮林藪光潔
地崇兮壇墠
餅如杵兮餽首如泥
紛糗粃兮餐餌
醞大甕兮醇深
酒汪汪兮烈椒桂
村有巫兮不知靈否
向空嘈啐兮如物固有
振鈴兮卓旛
腰先舞兮戟手
鼓坎坎兮未必無節
簫管匏磬兮誰遣汝奏

神不見兮見巫
神之降兮巫口
溪颺薄兮殷岑苑

指顧瞻兮在芒忽
降閃閃兮目以成
蕩空綠兮閃滅沒
穆前導兮夷猶
揖以升兮磬折
跪敷衽兮呢喃
辭惴惴兮神所監
睠明神兮正直
粒萬古兮恩實覃
民亦勞只兮不可以他望
年年歲歲兮惟有豐穰
此豈徒然兮所司存
六氣轆轤兮最雨暘
神之聽兮無違
甌窶汙邪兮千箱倉

맑은 시내 깨끗이 씻기고 숲은 번쩍번쩍 빛나
우뚝한 땅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었네.
떡은 공이 같고 돼지 머리는 진흙덩이 같아
중배끼며 인절미랑 푸짐하게 차리었고
큰 항아리 진국술은 진하고도 깊은 맛 나는데
항아리 술 찰랑찰랑 초계의 향은 강렬하네.
마을에 무당은 있으나 영험한지 알 수 없어라
본래 있는 일인 양 하늘을 향해 지껄이더니
방울을 흔들어대고 깃대를 높이 세우고
먼저 허리춤을 추어라 손에는 창을 들었네.
둥둥둥 북소리도 꼭 음절이 없진 않으려니와
통소 피리 소리는 요란해라 누가 네게 연주
케 했나

신은 보이지 않고 무당만 보이는데
신의 강림은 무당의 입으로 말해 주누나.
시내 바람 서로 부딪쳐 울창한 산이 찢찢 울
리더니

가리키며 돌아보매 참으로 황홀난즉이어라.
신의 강림이 번쩍번쩍 눈에 보인 듯 터니
이내 광활한 푸른 하늘로 언뜻 사라지도다.
공경히 앞에서 인도하며 한참 망설이다가
읍하고 올라갈 제 허리를 경쇠처럼 구부리네.
무릎 꿇고 옷자락 펼치고 시부령거리니
말이 정성스러운 곳에 신이 살피 임하시니
신명의 돌봄이여 정직하기도 해라
만고에 곡식 내려 은혜가 실로 깊고 넓도다.
백성은 또한 수고로워 다른 건 바랄 수 없으니
연년세세에 오직 풍년이나 들게 해 주옵소서.
이 어찌 그냥 그렇게 되리오 맡는 바가 있나니
육기가 뒤섞여 운행하매 우양이 우선이로다.
신명이 들었거든 어긋남이 없게 하사
구구 오야에서 천창 만상의 곡식을 수확케
하소서.

余縱無此蕉荔之芬芬兮	내가 비록 향기로운 바나나와 여지는 없지만
逝將厚糴兮膳熊胎豹率牛羊	가서 후한 제물로 웅변과 표태에 우양까지 잡아 왔네.
人既醉飽兮神亦應爾	사람이 취하고 배부르매神明 또한 감응하여
晦欲暮兮怪禽翔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가매 괴상한 새가 나 누나.
山窈水復兮送將歸	깊은 산 겹겹 계곡 안으로 장차 보내 드리려고
列缺御車兮霞爲梁	번개가 수레 물고 저녁놀이 다리가 되었도다.
方壺員嶠兮信美非吾土	방호 원교는 참으로 아름답지만 내 고향 아니거니
塹風遠征兮奈踟躕而涼涼	먼지바람 일으키며 멀리 간들 두렵고 적막함을 어이하랴.
千秋萬歲兮駐此郊垌	천추만세 무궁토록 이 들판에 머물러서
長我黍稌兮聊食報以徜徉	우리 곡식 길러 주고 보답 받으며 편안히 노니소서.

길지만 주된 내용은 간단하다. 황현은 가난한 농민들이 초라한 제수로 별다른 의식도 못하고 농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정반대로 아주 성대한 제수와 의식으로 제사를 받드는 모습을 가상으로 묘사하여 시를 지어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유두일에 농민들이 農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다. 流頭薦新은 주로 조상에게 올리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황현은 농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묘사하고 있다. 그 유래는 농경문화가 시작된 때부터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이 막을 내려가던 시기에 어려운 형편임에도 풍속을 거르지 않고 행하려던 가난한 농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들이 꼭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보고 들으며 자란 생활문화로서의 풍속을 자신들이 거를 수 없어서 이렇게 재연한 것이다. 시인 또한 그들의 정성과 행위에 지식인으로서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기층문화의 강고한 생명력과 영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한시라 하겠다.

2) 놀이문화로서의 세시풍속

(1) 옷놀이(擲綯)

지금도 명절이면 집집마다 옷놀이를 한다. 화투가 옷을 몰아낸 집들도 있지만, 아직 옷놀이를 하며 시끌벅적하게 명절을 쇠는 집이 적지 않다. 조선시대도 다를 것이 없었다. 兪漢鵠(1732~1811)은 「歲時詞」의 서문에 “내가 우리나라의 풍속을 채집하였는데, 그 가운데 기록할만한 세시 풍속이 11가지였다. 일마다 하나하나 노랫말을 붙여 노래로 불렀으니, 제목은 ‘歲時詞’이며, 또한 范成大가 ‘村田樂府’를 지은 뜻이다.”²¹⁾라고 하고 그 첫째를 옷놀이(擲綯)로 읊었다. 나머지는 ‘널뛰기(跳板)’, ‘방포(放砲)’, ‘연등(燃燈)’, ‘도우(屠牛)’, ‘떡국(湯飴)’, ‘문화(門畫)’, ‘재미승(齋米僧)’, ‘문안비(問訊)’, ‘머리카락 사르기(薙髮)’, ‘신발 감추기(藏鞵)’라 하였다.²²⁾

이 중에서 옷놀이를 노래한 것을 본다. 시의 형식은 古詩 가운데 長短句이다.

歲何樂歲何樂	설에는 무엇이 즐거울까? 설에는 무엇이 즐거울까?
樂在兒童	즐거움은 아이에게 있지
不在頭上髮半白客	머리가 허연 손님에게 있지 않다네.
且呼兒童汝莫睡	어허, 애야! 너 졸면 안 된다.
汝睡眉且白	너 졸면 눈썹이 하얗게 된단다.
樗蒲挈曹爲歡謔	장기판에서는 말을 옮기며 기뻐하며 농담하는데,
剖靚爲綯	싸리나무 쪼개어 옷을 만들어
畫紙爲局	종이에 옷판을 그리네.

21) 兪漢鵠, 「歲時詞-擲綯」, 『自著』권5, 『한국문집총간』제24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0, 91쪽. “余採國俗, 其於歲時可記者有十一, 事事各有詞以歌詠之, 名曰歲時詞, 亦范石湖村田樂府之意也.”

22) 위의 책, 91쪽 참고.

圓孔二十九	둥근 구멍 29개에
八馬分白黑	8개의 말이 흑백으로 나뉘었구나.
出入拱過用有術	들고나며 업고 지나감에는 방법을 씀이 있고
模介挑桀隨所擲	모개도걸 던지는 대로 나오지만
擲有能有不能	옷을 던짐에는 잘하고 못함이 있다네.
挑燈大呼爭立落	등불을 돋우고 제대로 켜다 아니 나갔다 큰 소리치니
老夫髮白猶爲笑啞然	흰머리 늙은이 오히려 말없이 웃기만 하다가
吾年如汝忘寢食	‘내가 네 나이 때는 침식도 잊었었지’라 하네.

유한준은 윗판에서 함께 윗놀이를 하고 있는 노인과 아이를 그리고 있다. 세시풍속은 이렇게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이다. 아울러 이 시에는 ‘세수(歲守)’와 ‘장기(樗蒲)’도 함께 등장한다. ‘세수’란 설달그믐(除夕)부터 설날 아침까지 밤을 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줄거나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한다. 그래도 이 시의 중심은 윗놀이이다. 29개의 동그라미로 표현된 윗판과 흑백으로 나뉜 두 편이 각각 4개의 말을 움직여 먼저 4개의 말이 모두 나오면 놀이에서 이기는 윗놀이의 경기규칙마저 잘 묘사하고 있다.

老少가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세시사」는 조선시대의 어느 가정의 풍경을 고스란히 옮겨 보여주고 있다. 늙은이는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윗놀이 삼매경에 빠져있고, 그 곁 어디에서는 장기를 두고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농담이 자못 재미있다고도 묘사하였다. 현재도 시골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가 담고 있는 세시풍속은 놀이문화로서의 생명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층문화의 생명력이 질기고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유한준의 이 시는 현존하는 세시풍속의 연대기 가운데 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후기 여항시인인 崔潤昌(1727~?)은 설달그믐에 「和金君始除夕韻」²³⁾을 지어 윗놀이와 除夕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餞舊迎新間幾年	묵은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올해 몇 살 인지 물으며
依然白髮坐燈前	성성한 흰머리는 그대로인 채 등불 앞에 앉 았구나.
人情自爾憐今夕	사람들 마음이 예전부터 오늘 밤을 아쉬워하 지만
斗柄其如任彼天	북두칠성 자루는 저 하늘이 하는 대로 맡길 뿐인 것을.
翁爲題詩吟不臥	늙은이는 시를 지어 읊조리느라 눕지 못하고
兒因擲檮戲無眠	아이는 윷놀이를 하느라 재미있어 잠들지 않네.
椒醪細酌梅花底	향기로운 막걸리를 매화나무 밑 등에 조금 따르노라니
還覺胸襟春思牽	가슴 속이 도리어 봄 생각에 이끌림을 느끼 노라.

이 시에는 설날을 맞이하는 세시풍속이 세 가지 등장한다. 除夕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올해 몇이나 되었나?’고 나이를 묻는 풍속이 그 한 가지이다.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풍속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매화나무의 뿌리에 스며들라고 막걸리를 부어주는 풍속이다. 이렇게 하면 매화가 잘 피고 매실도 많이 맺힌다고 한다. 또 하나는 윷놀이이다.

이 시에도 역시 밤을 새는 歲守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 늙은이인 시인은 시를 짓느라고 여념이 없고 아이는 윷놀이를 하느라 재미있어서 잠도 오지 않는다. 예나지금이나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있을 때 가장 생기가 있고 아이답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인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다면 함께 윷을 던지며 노소동락하는 시끌벅적함이 연출될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모습도 시에 그려 넣음으로써 풍속에 동참하고 있는 식자층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3) 崔潤昌, 『和金君始除夕韻』, 『東溪遺稿』 권2, 『한국문집총간』 속 제9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70쪽.

이 시는 기층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놀이문화가 삶의 한 단층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윗놀이에 대해 이렇게 호의적인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李德懋(1741~1793)은 이 윗놀이를 비롯한 놀이문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士小節』에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어린이들은 거개가 글 읽기 싫어하고 어른이 시키는 일 하기는 창피하게 여기면서, 모든 오락에 있어서는 권하지 않아도 잘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열심히 한다. 장기[象戲]·바둑[圍棋]·쌍륙[雙陸]·골패(骨牌)·지패(紙牌)·윗놀이[擲柶]·의전(意錢)·종정도(從政圖)놀이·돌공던지기[擲石毬]·팔도행성(八道行成) 등을 모두 환히 알면, 부형과 벗들은 재주가 있다고 그를 칭찬하고 잘하지 못하면 모두 그를 조소하니 어찌 그리도 고질이 되었을까? 이런 놀이들은 정신을 소모하고 뜻을 어지럽히며 공부를 해치고 품행을 망치며 경쟁을 조장하고 사기(邪氣)를 기른다. 심지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형벌까지도 받게 된다. 그러니 부형된 자는 엄금하여 오락 기구를 혹 숨겨 두는 일이 있으면 불태우거나 부숴 버리고 매를 때려 주어야 한다. 나는 성품이 조밀해서 어릴 때부터 남과 겨룰 마음이 없었다. 일생 동안 오락 기구를 쥐어보기는커녕, 세속의 아이들이 하는 당음(唐音)의 초중중(初中終)이나 초방(草榜) 같은 것까지도 하지 않았다. 우리 집 자제들은 나의 훈계를 준수하여 가정의 법도를 무너뜨리지 말라.²⁴⁾

좀 과하다 싶은 지적이다.²⁵⁾ 다만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24) 李德懋, 『士小節』, 『靑莊館全書』권31, 『한국문집총간』제257집, 민족문화추진회, 2000, 536쪽. “童孺之習, 舉皆厭讀書, 耻執役, 至於一切嬉技, 不勸而能, 不教而勤. 象戲·圍碁·雙陸·骨牌·紙牌·擲柶·意錢·從政圖·擲石毬·八道行成, 皆曉解, 則父兄儕友, 嘉獎才智, 如或不能焉, 則人皆嘲笑, 何其癩也. 凡耗精神亂志氣, 廢工業薄行檢, 資爭競養譎詐. 甚至溺於賭錢, 蕩敗財產, 迺陷刑辟. 故爲父兄者, 嚴截呵禁, 或潛置技具, 焚裂而楚撻之可也. 余性謹拙, 自幼無爭較之心, 不惟一生不執技具, 至如世俗童子所爲唐音, 初中終及草榜, 亦不爲之. 吾家子弟, 庶幾恪遵, 毋或敗度.”

25) 침언을 하자면, 이덕무는 중인이었다. 그가 사대부의 문화에 사대부보다 더 강

지금도 새겨 들어볼만하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놀이문화가 얼마나 성행했기에 이러한警戒까지 있었느냐는 것이다. 즉 반증의 자료인 것이다. 『사소절』은 당대의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인성과 예절을 습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그런 책에서 윗놀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놀이에 대해 금지시켜야 한다는 언급이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역으로 윗놀이가 조선후기에 매우 성행했고 보편적인 풍속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 연날리기(紙鳶)

지금도 몇몇 지방에서는 연날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연들이 경연을 벌이는 모습은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요즘은 기발한 모양의 창작 연에서부터 외국의 연들까지 볼 수 있어서 한층 다양한 볼거리가 생겼다. 연날리기도 우리의 세시풍속이면서 동시에 보편성을 지닌 놀이문화의 하나인 것이다.

張維(1587~1638)는 「紙鳶」²⁶⁾에서 당시 연날리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

輕絲薄紙颺微風	가는 실 얇은 종이 미풍을 타고 날아올라
來去都憑掌握中	오고감이 모두 손안의 일에 달렸구나.
却勝五溪煙瘴裏	馬援이 정벌한 五溪山의 瘴氣 속에
飛鳶跼踖墮層空	날던 솔개 툭툭 공중에서 떨어짐보다 낫다.

연이 하늘에서 재주를 부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漢의 장수 馬援이 정

한 고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분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었던 중인으로서의 몸부림에 다름이 아니다. 그가 실학자로서의 면모와 유학자의 근엄함을 동시에 갖는 것 또한 매우 이채로운 모습이라 하겠는데, 이 또한 조선후기의 다양한 사회변동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6) 張維, 「紙鳶」, 『谿谷集』권33, 『한국문집총간』제92집, 민족문화추진회, 1992, 540쪽.

별한 남방의 오계산에서 瘴氣가 심해 술개도 날다 떨어졌다는 고사를 끌어들여 종이연의 재주가 더 낫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재주는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겨울철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었던 옛날에 연날리기만큼 신나는 놀이는 없을 것이다. 여기다 연싸움까지 한다면 흥미진진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장유는 연날리기에서 하늘의 연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자유자재를 살아있는 술개와 견주었다. 이러한 시는 記俗詩라 할 수 있다. 풍속을 담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觀風察俗’의 자료로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典故의 사용이 연날리기의 생동감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조금은 현학적인 면이 기층문화의 역동성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장유는 놀이문화의 주체로서 同樂하는 모습이 아니라, 관망하는 관찰자 내지 기록자로서 他者の 위치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尹善道(1587~1671)는 「戲題紙鳶 二絶」²⁷⁾을 남겨 연날리기를 묘사하였다.

由來五鬼躡空虛	예부터 다섯 귀신 하늘을 밟고 다녔거늘
韓子當年誤作車	한유는 그때 잘못 수레를 만들었지.
翦紙爲雲馱汝去	종이를 오려 구름을 만들어 너희를 태워 보
	내니
東風碧落好歸歟	동풍을 타고 푸른 하늘로 잘 돌아가거라.
紙鳶能作御風行	종이연이 바람을 타고 잘도 날아다니니
我欲乘之朝太清	나도 타고서 하늘나라에 조회가고 싶네.
白玉群仙如可見	백옥궁의 여러 신선을 볼 수 있다면
衰顏不問問蒼生	늙은 얼굴은 묻지 않고 창생의 일 물으리라.

27) 尹善道, 「戲題紙鳶 二絶」, 『孤山遺稿』 권, 『한국문집총간』 제91집, 민족문화추진회, 1992, 279쪽.

첫째 수는 韓愈의 「送窮文」에 등장하는 五鬼[智窮·學窮·文窮·命窮·交窮의 다섯 窮鬼]를 말하면서, 한유가 이들을 떠나보내려고 만든 수레는 잘못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은 하늘을 밟고 다니지 땅을 밟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에 실어 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겠다고 너스레를 떠다. 둘째 수는 연이 바람을 타고 잘 날아다니니 자신도 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태청궁에 조회하고, 백옥궁에 들려 여러 신선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 여러 신선을 만난다면 백성들의 일만 묻고 자신의 늙고 병이 늪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노라 농친다.

앞에서 본 장유의 시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묘사와 주체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연은 사실 정월대보름이 되면 불살라 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때 달집태우기를 함께 하면서 모든 재액을 함께 가져가라고 한다. 첫째 수는 이러한 세시풍속의 배경을 깔고 있고, 둘째 수는 자유로이 비상하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담은 것이다. 윤선도의 정치적 곤궁이 언뜻 비치는 표현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못 이루는 바람들을 윤선도는 자유로이 나는 연을 탄다면 이룰 수 있으리라고 노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세시풍속의 놀이문화를 소재로 자신의 심경을 담은 서정시가 된다. 세시풍속은 문학의 소재로 활용되며 무궁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예전 대학가요제에 출전한 라이너스라는 그룹의 ‘연’이란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한시가 하나있다. 權鐸(1569~1612)의 「翻俗傳紙鶯歌」²⁸⁾가 그것이다.

我家諸厄爾帶去
不落人家掛野樹

우리 집 모든 액운 네가 다 가져가
인가에 떨어지지 말고 들판 나무에 걸려 있
다가.

28) 權鐸, 「翻俗傳紙鶯歌」, 『石洲集』권7, 『한국문집총간』제75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73쪽.

只應春天風雨時
自然消滅無尋處

그저 봄비가 내리면
절로 없어져 찾지 못하게 돼라.

제목을 풀면, “시속에 전해지는 연날리기노래를 번역함”이 될 것이다. 권필은 풍속에서 연에 모든 재액을 실어 보낸다는 액막이의 문화에 충실하게 시를 지었다. 연날리기는 놀이문화이면서 중층적으로 기층의 辟邪風俗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연을 보름날 태우라고 하시고, 남겨서 보관하지는 말라 하셨다. 내년에는 다시 만들어 날려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이다. 이는 필자가 선조부께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여하튼 연날리기는 기층의 놀이문화로서 그 생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풍속이다. 그 생명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사대부 지식인층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로 형상화했던 점은 여기서 간과할 수 없겠다. 민간의 노래를 漢譯하여 시로 남긴 것은 기층의 문화를 상층의 문화로 변화시켜, 구전되다가 사라지는 우려를 없애려한 발상이 아닐까 추정한다. 달리 말한다면, 세시풍속은 한시를 통해 계층 간의 소통과 세대 간의 유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문화가 되었던 것이다.

(3) 널뛰기(超板/超板戲/跳板)

세시풍속은 때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괜한 소란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처지가 전혀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과 변함없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함은 개인의 각자 상황이 다르다할지도 거의 모두 동일할 것이다. 그것이 세시풍속의 힘일 것이다.

李敏輔(1720~1799)는 「除夕感吟」²⁹⁾에서 처연한 심정으로 除夕을 맞으며 널뛰기를 묘사하고 있다.

29) 李敏輔, 「除夕感吟」, 『豐墅集』권5, 『한국문집총간』제232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400쪽.

逐盡官魔難鼓停	관청의 마귀를 다 쫓는 북소리가 멈추고
三更風露霽空青	삼경에 이슬비에 바람이 불더니 푸르게 개였
	구나.
單氷紅燼光搖戶	고드름 끝에 붉은 감부기불 같은 빛이 집안
	에 비추더니
跳板青娥響動庭	여자아이들 널뛰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
	는구나.
愁爲錢年非敢惜	근심은 남은 삶이 감히 아까워서가 아니고
懷因去國有難寧	마음은 도성을 떠나려니 편안하기 어렵네.
須知遐壽頑徒甚	모름지기 남보다 오래 살아야 완고함만 심해
	짐을 안다더니
贏博深冤十換星	아들을 먼저 묻고 별자리만 10번 바뀌었구나.

이민보가 1791년에 義禁府 堂上으로 있을 때, 照訖講試官에 임명되었던 尹永禧가 시험에 부정으로 개입했다는 이유로 하옥되는데, 그를 잘못 치죄했다는 이유로 약 1년간 파주목사로 좌천되었던 적이 있다. 다음해에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 형조판서가 되었고, 그 이후 관로에서 부침이 없었다. 좌천되기 전에도 환로에서의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민보는 1797년 12월 사직소를 올리고 도성을 떠났으며, 1797년은 出繼한 큰아들 李太源이 죽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1797년의 除夕에 그 울울한 심경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널뛰는 여자아이들의 소리로 마당은 시끌벅적하지만, 시인은 전혀 흥이 날 수 없다. 오히려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이 가혹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이때 이미 78세의 노경에 접어든 시인으로서의 자조 섞인 목소리로 오래 살아봐야 완고함만 심해짐을 알뿐이라고 탄식한다. 하지만 시인의 그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명절을 맞아 시끌벅적하기만 하다. 심정적으로 明暗이 함께 있는 분위기를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시름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 널뛰는 소리가 요란할수록 시인의 고독과 시름은 깊은 것이다. 여기서 널뛰기는 세시풍속이기는 하지만, 시인의 소외와 시

름을 부각시키는 시적 장치인 것이다.

金祖淳(1765~1832)은 「除夕有懷」³⁰⁾라는 長篇詩를 남겼는데, 644字 92句의 이 시는 한해의 모든 세시풍속을 다 담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조금씩 담고 있다. 여기서는 그 앞부분의 일부만 본다.

季冬晦日稱除夕	겨울의 마지막달 그믐날을 제석이라 부르는데
古來好事多戲劇	예부터 호사가들은 우스꽝스러운 일 많이 하지.
火聲爆裂驚山竹	폭죽으로 터뜨리는 화약소리에 산 대나무가 놀랄 정도니
泥封圻開盈樽柏	진흙으로 봉한 박달나무 술통이 터지는 소리 라네.
妖韶寂歷跳板娘	어여쁘고 얌전하던 널뛰는 아가씨
大擲狂叫擣蒲客	크게 던지며 미친 듯 소리치는 장기판/윷판 손님.
街童結隊鬧不睡	길거리 꼬마들 무리를 이루어 시끌벅적 잠을 자지 않는데
睡時或恐雙眉白	잠들면 혹 두 눈썹이 하얗게 될까 걱정해서 라지.
(以下 省略)	

시끌벅적한 세시풍속의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는 이 시에서 널뛰기는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다. 평상시 얌전하고 어여쁘기만 하던 아가씨가 널뛰기를 하고, 장기판이나 윷판에서는 고함을 치며 분위기를 돋우는 남정네들의 모습이 그렇다. 擣蒲는 흔히 장기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김조순의 경우는 윷놀이로 본 듯하다. 그런 사례는 몇몇이 있기에 여기서는 둘 다 기록해둔다.

세도정치를 했던 가문의 중핵이었던 김조순조차 기층의 문화에 무심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一韻到底로 92구를 지은 것에서

30) 金祖淳, 「除夕有懷」, 『楓臯集』권1, 『한국문집총간』제28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2, 13쪽.

문학적 역량을 과시하고자 했던 의도가 없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보다는 권력에 최정점에 있던 그가 민간의 풍속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할 것이다. 세시풍속은 분명 기층의 문화이고, 널뛰기는 그저 놀이문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에 그저 타자로만 있을 수 없기에 관망하다가 기록하고, 체모를 잃을까 저어하다가 다가가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는 기층문화인 세시풍속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었던 것이다. 세시풍속 앞에서는 권력이나 신분, 체면은 아주 나약한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적잖은 한시에 세시풍속이 담겨 있고, 때로는 세시풍속만을 담은 연작시가 지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네(鞦韆)나 씨름(角觝) 같은 놀이문화로서의 세시풍속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생활문화와 놀이문화로 크게 나눈 세시풍속 가운데, 여섯 가지를 추출하여 그 여섯 가지의 세시풍속을 담고 있는 한시를 살펴보았다. 생활문화인 설빔, 과하주, 유두의 풍속을 담은 한시에서 시인은 때로는 개인적인 기억의 매개체로 추억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관찰자의 위치에서 풍광을 묘사하듯 그리기도 하며, 때로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동참하기도 한다. 교훈이나 거대담론을 말하는 수단으로서 한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시풍속을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묘사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세시풍속은 교훈이나 유학의 거대담론, 즉 忠·孝·義·烈 등보다 그 존재감에서 앞선다. 한시에서 세시풍속은 일상의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써 껍진한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놀이문화인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의 풍속을 담은 한시에서 시인은

객관적인 관찰자에 머무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놀이마당의 구석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동참자로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기도 한다. 최고의 권력자에게나 세력을 잃고 낙향한 관리에게나 퇴락한 선비에게나 세시풍속은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우 생동감 있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덤덤하게 볼 수 없는 역동적인 문화였다. 거기에 세시풍속의 끈질긴 생명력과 사회적 신분이나 개인적 처지를 넘어서게 하는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의 대상을 확대하고, 歲時記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 權鐸, 「翻俗傳紙鳶歌」, 『石洲集』 권7, 『한국문집총간』 제75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73쪽.
- 金祖淳, 「除夕有懷」, 『楓臯集』 권1, 『한국문집총간』 제28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3, 13쪽.
- 申光漢, 「除夕雜詠-憶長女」, 『石北集』 권6, 『한국문집총간』 제231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317쪽.
- 申濡, 「家人舊釀過夏酒, 今年選用新方 味絕佳 酷似日本之鎌刈縣忍冬酒 吟成一絕」, 『竹堂集』 권7, 『한국문집총간』 속 제3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7, 467면.
- 俞漢雋, 「歲時詞-擲柳」, 『自著』 권5, 『한국문집총간』 제24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0, 91쪽.
- 尹善道, 「戲題紙鳶 二絕」, 『孤山遺稿』 권, 『한국문집총간』 제91집, 민족문화추진회, 1992, 279쪽.
- 李德懋, 「士小節」, 『靑莊館全書』 권31, 『한국문집총간』 제257집, 민족문화추진회, 2000, 536쪽.
- 李敏輔, 「除夕感吟」, 『豐墅集』 권5, 『한국문집총간』 제232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400쪽.
- 張維, 「紙鳶」, 『谿谷集』 권33, 『한국문집총간』 제92집, 민족문화추진회, 1992, 540쪽.
- 崔潤昌, 「和金君始除夕韻」, 『東溪遺稿』 권2, 『한국문집총간』 속 제9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70쪽.

【연구논저】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장주근저작집IV-세시풍속편』, 장주근저작
집간행위원회, 민속원, 2013, 23쪽, 25-31쪽, 303쪽.

【DB 및 번역본】

杜甫, 『杜少陵詩集 卷19』- 한국고전번역원 DB.

徐有渠, 『山林經濟』 권2, 「釀酒」, 한국고전번역원DB 인용.

成倪, 『慵齋叢話』 권2, 한국고전번역원 DB.

成倪, 『虛白堂詩集』 권8, 한국고전번역원 DB.

洪錫謨 編著, 秦京煥 譯註, 『서울·세시·한시-都下歲時記俗詩』, 보고사,
2003, 37쪽.

黃玿, 「祭農神辭」, 『梅泉集』 권1, 한국고전번역원 DB.

에두아르트 폭스, 이기웅·박종만 옮김, 『풍속의 역사 I -풍속과 사회』,
까치, 1988, 5쪽.

<Abstract>

Chosun Dynasty Seasonal customs(歲時風俗) to see through the Chinese poetry

Shin, Seung-hun

And it made a special Feast season seasonal customs appears mingle together a living culture and amusement culture. Because it mixed together and implemented in the same space of time, such as cultural and amusement life and culture. It is worth reflecting specialty and seasonal customs in point-wise and great holiday farming culture, that New Year and Chuseok intensively appears and Dano and is a point.

Record of Season customs(歲時記) seasonally as a reason to focus on the emergence of the late Joseon seem to be interested in because of the seasonal customs were spreading far Intellectual hierarchy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is believed to reflect the will Record of Season customs(歲時記) a state of altered consciousness of social change and the intellectua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Written in poetry because of seasonal customs are handed down because we believe that due to the phenomenon of interest, and their voices and lives of the base incidence folk culture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and the base layer reflective thinking and society of intellectuals.

Subject to form, and they enjoy the seasonal customs, life culture and customs as they grew up listening to and watching replays because they're able to. Poet to describe the seasonal customs in

poetry has also participated in an intellectual act, and their sincerity. This is because the firm that drivers of vitality and cultural impact of the base. Three wind power or status in front, face masks are just very weak. The poetry is considerable seasonal customs and contained, and sometimes even seems that there is a reason why built right here in the yeonjaksi containing only seasonal customs. In fact, culture is can be called stacked Laminated Section(積層). So the culture of the day will come, not the culture of Today.

Key Words : Seasonal customs, cultural base, Record of Season customs(歲時記), living culture, amusement culture, subjects, Other, Laminated Section(積層), cross-section(斷面)

■ 논문접수 : 2015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0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